

현안 짚은 심층·해설 기사...세련된 편집·제목 돋보여

광주일보 제11기 독자위원회 3차 회의

9월 25일 광주일보 9층 편집국 회의실

광주일보 제11기 독자위원회 3차 회의가 지난 25일 광주일보 9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독자위원회에는 김미은 여론매체부장·편집국 부국장을 비롯해 김윤하 독자위원장, 이철갑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민상준 금호그룹 상무, 최강남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장, 김용기 광주시소프트테니스협회장, 고성혁 시인, 최선희 베스트디자인연구소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제11기 광주일보 독자위원들이 지난 25일 광주일보 편집국 회의실에서 김윤하(가운데) 위원장 주재로 독자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김윤하 전남대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장



의료대란·폭염·폭우 발빠른 보도
대안까지 함께 보여준 양질의 기사

이철갑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반복해서 다룬 '군공항 이전'
무안 반대 이유 등 구체적 제시 아쉬워

민상준 금호그룹 상무



'대자보 도시 전환' 기대·우려 잘 짚어
숨어있는 여론도 적극 찾아내 보도해야

최선희 베스트디자인연구소 대표



광주비엔날레 추석 특집판
매혹적 제목·시원한 편집 눈에 띄어

김용기 광주시소프트테니스협회장



1면 전면 할애 스포츠 기사 게재 '박수'
농치기 쉬운 패럴림픽 소식 섬세한 보도

최강남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장



'무료 독감 백신 접종' '생활자금 신청'
실생활에 도움 되는 기사 더 나오길

고성혁 시인



'흑산공항 착공 전 넘어야 할 산은?'
기후·환경 보전 문제 더 짚어줘야

◇김윤하=3분기는 여느 해보다 뜨거운 '뽕뽕더위'가 지속된 가운데 경제난, 해법 없는 의정 갈등, 정치 없는 정치권 등으로 국민들이 답답한 시간이었다. 반면 파리 올림픽,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우승과 같은 시원한 뉴스도 있었다. 지역 현안에 대해 광주일보의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와 다양한 주제의 기획 기사가 눈에 띄었다. 또 폭염에 따른 날씨 기사와 발빠른 스포츠 기사가 비중 있게 다뤄져 돋보였다.

◇이철갑=반복해서 다룬 '군공항 이전'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응급실이 '응급상황'...한계치 도달' (9월 3일자 2면), '응급환자 태우고 119 뺑뺑이 언제까지...' (9월 24일자 1면), '의료대란에 고위험 임신부·중증 신생아 갈 곳이 없다' (9월 9일자 1면) 등 실례를 깊이 있게 다루며 심각한 후유증을 보도했다. 실제 지난 추석 조기 진통이 있는 쌍둥이 산모 두 명이 전남대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서울대병원 등으로 이송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현재 상황이 위험 수준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상준='무안공항, 통합 미적대는 사이 새만금 국제공항이 뜬다' (8월 14일자 1면)는 대안 제시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을 당부하는 기사로 광주일보의 저력이 돋보였다. '외면받는 국립공원 무등산 '탐방 인프라' 개선 시급' (7월 18일자 1면)은 무등산의 실태와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유익했고, '광주 시간당 100mm 폭우 대비 배수 시스템 구축을' (7월 25일자 2면)에서는 호우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안도 함께 보여주는 양질의 기사였다.

◇최선희='펜스 넘기고 팬심 흠치고...' (40(홍련)-40(도루) '날아라 김도영' (8월 23일자 1면)과 추석 특집판 '한 눈에 보는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빛고를 곳곳서 31 세계문화여행' (9월 13일자 16, 17면) 기사는 매혹적인 제목과 편집으로 눈길을 끌었다. 파빌리온을 두 개의 면에 통째로 게재한 브릿지 편집으로 한 눈에 볼 수 있고, 이는 지면만이 줄 수 있는 혜택이다. '쌀값 하락이 충격적인 가운데 밥이 진심, 밥심이 쌀심' 시의적절한 기획기사가 돋보였다. "밥은 하늘이 다" 했는데 밥 한공기 곱값도 안 돼' (8월 6일자 1면)는 쌀값 하락에 대한 분석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기획물로 큰 의미가 있었다. '정부, 쌀수요 발굴·양곡벌 외면...농민탄탄 해셔야' (8월 7일자 8면), '건강한 아침 한 끼, 두뇌회전·비만 예방의 보약' (8월 9일자 9면) 등의 기사를 통해 한계와 쌀 수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농도 전남의 현안에 집중했다.

◇김용기=신문 양쪽 면에 스포츠 기사를 게재하고, 스포츠 전문지가 아니면서도 신문의 1면을 전부 할애 해 보도하는 광주일보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파리 올림픽 관심이 뜨거웠다. "女중량당" 올림픽 (8월 5일자 1면) 등 광주-전남 선수단의 선전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패럴림픽 선수들은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데, 이번 광주일보에서는 양궁 국가대표 김옥금 선수와 '패럴림픽 탁구 김영진 '세계 1위' 꺾고 금메달' (9월 9일자 18면)의 김영진 선수 등 소식을 놓치지 않고 알렸다. 광주가 낳은 세계적 공사인 안산-기보배-김옥금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내년에 열리는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도 기대가 된다. 최근 유튜브에 '기아에게 갑질하는 광주시' 관련 내용이 나왔다. 챔피언스필드가 만들어질 때 기아, 광주

◇이철갑=1면 톱 기사와 그에 따른 3면 심층·해설 기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 요즘에는 공급증을 풀 수 있는 해설 기사와 다각도로 짚어보는 양질의 기사 등이 1면과 3면에 함께 제시되고 있다. 지역의 여러 현안 중 2가지를 언급하고 싶다. 먼저 '군공항 이전, 3차 대면 '주목' (6월 28일자 1면), '광주 민간·군 공항 무안으로 통합 서둘러야' (7월 24일자 1면), '무안군수 '반대' 무안 반복 공항 이전 3차 회동 '빈손' (7월 31일자 1면) 등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반복해서 다뤘다. '공항이전 연말이 '골든타임'...민·관·정 함께 돌파구 찾는다' (9월 4일자 3면)에서 보듯 '군공항 이전 한계와 대책 토론회' 기사가 나와 의미있었다. 다만, 무안 군공항 이전 반대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좋겠다.

◇최강남='흑산공항 착공 전 넘어야 할 산은?' '기후·환경 보전 문제 더 짚어줘야' '흑산공항 착공 전 넘어야 할 산은?' '기후·환경 보전 문제 더 짚어줘야' '흑산공항 착공 전 넘어야 할 산은?' '기후·환경 보전 문제 더 짚어줘야'

◇민상준='車 이용 불편한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광주'...기대·우려 교차' (7월 2일자 1면)는 대자보 도시 전환을 놓고 지역 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는 내용을 잘 보여줬다. 대자보 도시가 과연 광주에 적합한 일인지, 짐을 들고 버스를 탈 복합 쇼핑물 쇼핑객이 얼마나 될 지 등의 의문점이 생긴다. 이에 '광주시 "차 중심도시 탈피" 시민 "운전자 불편 강

요' (7월 2일자 3면)에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 잘 짚었다. 앞으로 숨어있는 여론을 보여주는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최강남='광주-전남, 20일부터 독감 무료접종 "신분증 꼭 챙겨주세요" (9월 19일자 2면)라는 제목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섬세하게 챙겼다. "북구, 생활안전지구 신청하세요" (9월 19일자 12면), '광주 1인당 소득 3683만원...전국 평균보다 1000만원 적어' (9월 6일자 8면), '아이들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광주 서구, 아동복지사업 다채' (9월 19일자 12면)처럼 작지만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사가 앞으로도 더 나오길 바란다.

◇김용기='광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적용' (7월 15일자 5면)은 건강검진 공개제, 복지포인트 향상 등 처우 개선 계획 등을 담았다. 이런 혜택이 모두에게 지급되고 있는지, 사회복지사들끼리의 차별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정책에 제갈하는 부분 등을 추가적으로 담아주면 좋겠다.

◇고성혁='제목과 편집이 돋보인다. '어린이집 100곳 문 닫을때 노인시설 800곳 문 열었다' (8월 2일자 1면)는 인구절벽의 현실을 단 몇 마디로 짚었다. '이 폭염에...문 닫혀 있는 무더위부터 '무용지물' (8월 13일자 6면)은 제목만 봐도 노인들에 대한 빈손 무더위 대책임을 알 수 있었다.

◇김용기='사업 배제·예산 축소...정부, 도 넘은 '광주 패싱' (7월 16일자 1면), '야당 도시 낙인...'파퓰러 행정'에 광주 미래 '먹구름' (7월 16일자 4면)은 광주-전남의 정치적인 현주소를 보여준다. 지역 정치력이 의원들의 민주주의와 지역을 향한 노력, 사·도민의 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면 무등고 '집으로' (6월 28일자 23면)가 직접적으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의 대표 신문으로서 광주일보가 호남민들의 정치를 향한 우려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호남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는 '정치 에피소드' 혹은 '가십코너'를 만들어 차세대 인물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키워나가면 좋겠다.

◇최선희='흑산공항 착공 전 넘어야 할 산은? 환경문제 관심 집중' (8월 2일자 6면)은 기후·환경 보전 측면에서 보다 깊이 있게 짚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시리즈가 흥미롭다. 좀더 깊이를 더한다면 농촌에 대한 기록이 될 것 같다.

◇고성혁='흑산공항 착공 전 넘어야 할 산은? 환경문제 관심 집중' (8월 2일자 6면)은 기후·환경 보전 측면에서 보다 깊이 있게 짚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시리즈가 흥미롭다. 좀더 깊이를 더한다면 농촌에 대한 기록이 될 것 같다.

◇김용기='사업 배제·예산 축소...정부, 도 넘은 '광주 패싱' (7월 16일자 1면), '야당 도시 낙인...'파퓰러 행정'에 광주 미래 '먹구름' (7월 16일자 4면)은 광주-전남의 정치적인 현주소를 보여준다. 지역 정치력이 의원들의 민주주의와 지역을 향한 노력, 사·도민의 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면 무등고 '집으로' (6월 28일자 23면)가 직접적으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의 대표 신문으로서 광주일보가 호남민들의 정치를 향한 우려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호남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는 '정치 에피소드' 혹은 '가십코너'를 만들어 차세대 인물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키워나가면 좋겠다.

◇최선희='흑산공항 착공 전 넘어야 할 산은? 환경문제 관심 집중' (8월 2일자 6면)은 기후·환경 보전 측면에서 보다 깊이 있게 짚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시리즈가 흥미롭다. 좀더 깊이를 더한다면 농촌에 대한 기록이 될 것 같다.

◇김용기='사업 배제·예산 축소...정부, 도 넘은 '광주 패싱' (7월 16일자 1면), '야당 도시 낙인...'파퓰러 행정'에 광주 미래 '먹구름' (7월 16일자 4면)은 광주-전남의 정치적인 현주소를 보여준다. 지역 정치력이 의원들의 민주주의와 지역을 향한 노력, 사·도민의 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면 무등고 '집으로' (6월 28일자 23면)가 직접적으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의 대표 신문으로서 광주일보가 호남민들의 정치를 향한 우려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호남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는 '정치 에피소드' 혹은 '가십코너'를 만들어 차세대 인물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키워나가면 좋겠다.

◇고성혁='흑산공항 착공 전 넘어야 할 산은? 환경문제 관심 집중' (8월 2일자 6면)은 기후·환경 보전 측면에서 보다 깊이 있게 짚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시리즈가 흥미롭다. 좀더 깊이를 더한다면 농촌에 대한 기록이 될 것 같다.

◇김용기='사업 배제·예산 축소...정부, 도 넘은 '광주 패싱' (7월 16일자 1면), '야당 도시 낙인...'파퓰러 행정'에 광주 미래 '먹구름' (7월 16일자 4면)은 광주-전남의 정치적인 현주소를 보여준다. 지역 정치력이 의원들의 민주주의와 지역을 향한 노력, 사·도민의 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면 무등고 '집으로' (6월 28일자 23면)가 직접적으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의 대표 신문으로서 광주일보가 호남민들의 정치를 향한 우려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호남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는 '정치 에피소드' 혹은 '가십코너'를 만들어 차세대 인물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키워나가면 좋겠다.

◇최선희='흑산공항 착공 전 넘어야 할 산은? 환경문제 관심 집중' (8월 2일자 6면)은 기후·환경 보전 측면에서 보다 깊이 있게 짚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시리즈가 흥미롭다. 좀더 깊이를 더한다면 농촌에 대한 기록이 될 것 같다.

◇최강남='광주-전남, 20일부터 독감 무료접종 "신분증 꼭 챙겨주세요" (9월 19일자 2면)라는 제목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섬세하게 챙겼다. "북구, 생활안전지구 신청하세요" (9월 19일자 12면), '광주 1인당 소득 3683만원...전국 평균보다 1000만원 적어' (9월 6일자 8면), '아이들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광주 서구, 아동복지사업 다채' (9월 19일자 12면)처럼 작지만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사가 앞으로도 더 나오길 바란다.

◇김용기='광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적용' (7월 15일자 5면)은 건강검진 공개제, 복지포인트 향상 등 처우 개선 계획 등을 담았다. 이런 혜택이 모두에게 지급되고 있는지, 사회복지사들끼리의 차별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정책에 제갈하는 부분 등을 추가적으로 담아주면 좋겠다.

◇고성혁='제목과 편집이 돋보인다. '어린이집 100곳 문 닫을때 노인시설 800곳 문 열었다' (8월 2일자 1면)는 인구절벽의 현실을 단 몇 마디로 짚었다. '이 폭염에...문 닫혀 있는 무더위부터 '무용지물' (8월 13일자 6면)은 제목만 봐도 노인들에 대한 빈손 무더위 대책임을 알 수 있었다.

◇김용기='사업 배제·예산 축소...정부, 도 넘은 '광주 패싱' (7월 16일자 1면), '야당 도시 낙인...'파퓰러 행정'에 광주 미래 '먹구름' (7월 16일자 4면)은 광주-전남의 정치적인 현주소를 보여준다. 지역 정치력이 의원들의 민주주의와 지역을 향한 노력, 사·도민의 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면 무등고 '집으로' (6월 28일자 23면)가 직접적으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의 대표 신문으로서 광주일보가 호남민들의 정치를 향한 우려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호남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는 '정치 에피소드' 혹은 '가십코너'를 만들어 차세대 인물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키워나가면 좋겠다.

◇최선희='흑산공항 착공 전 넘어야 할 산은? 환경문제 관심 집중' (8월 2일자 6면)은 기후·환경 보전 측면에서 보다 깊이 있게 짚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시리즈가 흥미롭다. 좀더 깊이를 더한다면 농촌에 대한 기록이 될 것 같다.

◇김용기='사업 배제·예산 축소...정부, 도 넘은 '광주 패싱' (7월 16일자 1면), '야당 도시 낙인...'파퓰러 행정'에 광주 미래 '먹구름' (7월 16일자 4면)은 광주-전남의 정치적인 현주소를 보여준다. 지역 정치력이 의원들의 민주주의와 지역을 향한 노력, 사·도민의 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면 무등고 '집으로' (6월 28일자 23면)가 직접적으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의 대표 신문으로서 광주일보가 호남민들의 정치를 향한 우려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호남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는 '정치 에피소드' 혹은 '가십코너'를 만들어 차세대 인물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키워나가면 좋겠다.

◇고성혁='제목과 편집이 돋보인다. '어린이집 100곳 문 닫을때 노인시설 800곳 문 열었다' (8월 2일자 1면)는 인구절벽의 현실을 단 몇 마디로 짚었다. '이 폭염에...문 닫혀 있는 무더위부터 '무용지물' (8월 13일자 6면)은 제목만 봐도 노인들에 대한 빈손 무더위 대책임을 알 수 있었다.

◇김용기='사업 배제·예산 축소...정부, 도 넘은 '광주 패싱' (7월 16일자 1면), '야당 도시 낙인...'파퓰러 행정'에 광주 미래 '먹구름' (7월 16일자 4면)은 광주-전남의 정치적인 현주소를 보여준다. 지역 정치력이 의원들의 민주주의와 지역을 향한 노력, 사·도민의 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면 무등고 '집으로' (6월 28일자 23면)가 직접적으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의 대표 신문으로서 광주일보가 호남민들의 정치를 향한 우려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호남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는 '정치 에피소드' 혹은 '가십코너'를 만들어 차세대 인물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키워나가면 좋겠다.

◇최선희='흑산공항 착공 전 넘어야 할 산은? 환경문제 관심 집중' (8월 2일자 6면)은 기후·환경 보전 측면에서 보다 깊이 있게 짚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시리즈가 흥미롭다. 좀더 깊이를 더한다면 농촌에 대한 기록이 될 것 같다.

◇김용기='사업 배제·예산 축소...정부, 도 넘은 '광주 패싱' (7월 16일자 1면), '야당 도시 낙인...'파퓰러 행정'에 광주 미래 '먹구름' (7월 16일자 4면)은 광주-전남의 정치적인 현주소를 보여준다. 지역 정치력이 의원들의 민주주의와 지역을 향한 노력, 사·도민의 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면 무등고 '집으로' (6월 28일자 23면)가 직접적으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의 대표 신문으로서 광주일보가 호남민들의 정치를 향한 우려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호남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는 '정치 에피소드' 혹은 '가십코너'를 만들어 차세대 인물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키워나가면 좋겠다.

/정리·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